

홍준표, “박정희 대통령 동상, 연내 건립 추진” 특명

홍준표, “입만 열면 반대나 하고 시장을 무고 고발하는 좀비 같은 단체 눈치 보면서 시정운영 하지 않는다 개는 짚어도 기차는 간다”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박정희 대통령 동상건립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이다. 홍 시장은 11일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주재, “4월 중으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전문가로 구성된 동상건립위원회를 만들라”는 특명을 내렸다.



그는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박정희 동상을 건립하라”고 지시했다. 홍 시장은 “대구도서관 내의 공원을 박정희 광원으로 명명하고 대형 동상을 설치하는 등 올해 안으로 제반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동대구역 광장과 남구 대명동 대구도서관 등 2곳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키로 했다. 홍 시장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

는 사업을 할 때가 됐다”며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그 앞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는 방안은 어떠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는 논란이 많으며 국민의 평가가 끝난 분”이라면서 “(동상은) 홍물 논란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것이고 비웃음거리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도 “홍 시장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을 독재 행태라고 비판

했는데 지금은 동상을 세워 기념하려는 등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홍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 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좌파가 집권할 때 대한민국에 적대적이었던 자진 월북인사 정윤성 동상과 공원도 국민 세금으로 500억원이 들어 조성했다”며 “우파가 집권했는데도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나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 기념사업은 좌파 눈치 보면서 망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러다 다시 좌파가 집권하면 제주 양민 희생생을 추모하는 4·3평화공원에

북한 애국열사능에 묻힌 김달삼 동상도 세우려고 시도할 수도 있겠다”며 “외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두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평온해진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7일에도 “자진 월북인사인 정윤성 동상, 공원도 500억원이나 국비·지방비 들여 만드는 나라”라며 “거기에는 아무 말도 못하는 일부 단체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는 온갖 음해와 시비를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만 열면 반대나 하고 시장을 무고 고발이나 하는 좀비 같은 단체 눈치나 보면서 시정 운영을 하지 않는다”며 “개는 짚어도 기차는 간다”고 밝혔다. ~ 조여은 기자



단체장 일정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12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24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12일 오전 동덕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어린이 교통안전 계몽운동'에 참석한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대구의 봄 온 세상이 하얗다...벚꽃철 어디 갈까?

대구지역은 이곳으로 동구 지저동 벚꽃터널 달서구 월곡역사공원

'벚꽃시계'가 예년보다 빠르게 들고있다. 벌써 남쪽에는 봄꽃 개화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벚꽃 계절이다. 벚꽃철을 맞아 대구에서 봄 내음이 물씬 풍기는 지역 명소 2곳이 소개됐다. '제11회 달창지길 벚꽃축제'도 곧 열린다. 대구기상청은 올해 봄꽃 개화 시기를 개나리 3월19일, 진달래 3월22일, 벚꽃 3월26일 등으로 예측했다.

■지저동 벚꽃터널 동구의 '지저동 벚꽃터널'은 매년 벚꽃 필 무렵 늦은 밤까지 상춘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으며 연인들의 데이트, 가족나들이 등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코스다. 이 터널은 야양교에서 공항교 방향으로 이어지는 2km에 걸친 금호강 독일이다. 길 양쪽에 왕벚나무, 모감주·아팝·노티나무, 히말라야시다 등 600여 그루의 나무가 늘어서 있으며 개나리, 진달래, 매화 등 다양한 야생화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사계절 내내 특색 있는 조형 연출이 가능한 야간조명도 설치돼 야경이 장관을 이룬다. 밤이 되면 각 나무당 2개씩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316개에서 불이 나온다. 터널 건너편 야양기차터널에서 보이는 팔공산을 형상화한 조형물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주변 관광지로 팔공산과 금호강을 배경으로 노래한 가수 패티김의 '능금꽃 피고 향' 노래비가 있다. 이비의 버튼을 누르면 패티김이 직접 부른 노래를 감상할 수 있다. 동구 금호강 일대 스아양교~화랑교 2km, 스화랑교~울천교 3km, 스안신교~안심습지 3km 구간에서도 왕벚나무 700여 그루에서 핀 꽃이 절경을 이룰 예정이다.

■달창지길 벚꽃축제 제11회 달창지길 벚꽃축제가 오는 22-24일 까지 3일간 달성군 유가읍 한정리 일대에서 열린다. 달창지길 벚꽃축제는 한정보건진료소에서 달창저수지까지 왕복 5km에 이르는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벚꽃길이다. 비슬산 자연휴양림 참꽃축제와 더불어 달성군의 관광명소로 해가 거듭될수록 상춘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행사를 주관하는 박인식 유가읍변영희장은 “유가읍민 노래자랑을 포함, 먹거리장터 운영, 지역농특산물 홍보부스 운영, 길거리 버스킹 공연 등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며, 달성군을 대표하는 명품 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계영 유가읍장은 “항상 유가읍을 위해 봉사해주시는 유가읍 변영희 회원분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제11회 달창지길 벚꽃축제가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 교통, 청결 등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 내에는 꽃보라동산, 수성못, 두류공원, 이월드 등 다양한 벚꽃 명소가 많다”며 “봄 내음 물씬 나는 길에서 봄날의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 조여은 기자

■달서구 월곡역사공원 겹벚꽃으로 유명한 '달서구 월곡역사공원'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 겹벚꽃은 일반 벚꽃보다 약 2~3주 늦게 찾아오며 꽃잎이 여러장 겹쳐 퍼져 붉은 이름이다. 월곡역사공원은 기존 월곡공원에 단양우씨 종중이 소유한 낙동서원과 식물원대지, 장지산 일대 등을 증설해 조성된 곳이다. 이곳은 수백년 된 고목과 신생목 등 겹벚나무 71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벚꽃엔딩이 아쉬운 사람들이 주로 방문한다. 겹벚나무에 피는 꽃은 하얀색에서 분홍빛으로 천천히 물들기 때문에 다른 벚꽃보다 약한달 이상 늦봄의 정취를 유지해서다. 공원 내에는 의병장 우배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월곡역사박물관도 있다. 이곳에는 각종 기념비와 낙동서원, 덕양재 등 전통 건축물들이 조성돼 있다.

박물관에 전시된 의병군 전공 보고서는 임진왜란 당시 대구지역 의병 활동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쓰였다.

경북경찰 “총선 선거사범 32명 수사 중”... 절반 허위사실 유포 선거사범 발본색원 경북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각종 선거사범 3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수사 중인 선거사범 32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허위사실 유포가 15명으로 가장 많다. 금품수수 11명, 공무원 선거관계가 3명, 사전선거운동 1명, 기타 2명 등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 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공모한 자도 끝까지 추적, 발본색원 한다. 경찰은 앞으로도 선거일까지 선거의 공정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련,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 단속한다. 지난달 7일 경북경찰청 및 도내 23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158명을 편성했다. 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경찰은 앞으로 모든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엄정·중립 자세를 유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한다. 김성용 기자

경북도, 마을숲정원... '영양·영덕' 선정

영양군 '선바위 마을숲정원' 영덕군 '강구항 마을숲정원' 경북도, 3억 6000만원 투입

경북도가 '마을숲정원' 조성 사업지로 영양·영덕군을 선정했다. 마을 주변 자투리땅이나 유휴지, 공한지 등에 지역맞춤형 마을숲정원을 조성한다. '경북형마을숲정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신규시책으로 경북 내 마을 주변 자투리 땅, 유휴지, 공한지 등을 지역맞춤형 마을숲정원으로 조성, 녹색생활 공간 확충과 생활 속 정원문화 활성화를 추진한다. 올해 선정된 영양군 '선바위 마을숲정원'은 입면면적 95·7 1500㎡ 터에 영양군 분재야생화테마파크와 연계한 정원 조성으로 마을주민 이용과 더불어 선바위관광지를 활성화한다. 영덕군 '강구항 마을숲정원'은 강구면 삼사리 일원 4328㎡ 터에 주민 휴게공간 제공 및 이미 조성된 실외 정원과 연계한 테마정원 조성으로 진흙입부 경관개선과 관광영덕 이미지를 높인다. 올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지 요건 충족지역을 수요조사한 후 서류 및 현장 조사를 했다. 김성용 기자

종합

대구광역시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2



수성구 수성2·3가동 희망나눔위, 교복 구입비 지원

수성구 수성2·3가동 희망나눔위원회가 저소득 가정 학생을 위한 교복 구입 지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지원금은 동 희망나눔위원회를 비롯한 단체

후원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약사업비로 마련됐다. 교복과 교재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소득 가정 중·고등학교 학생 15명에게 20만 원씩 전달한다.

수성구 고산3동 희망나눔위원회도 고산3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올해 중·고에 입학한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위한 희망장학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고산3동 행정복지센터는 기탁받은 장학금을 청소년 15명에게 20만 원씩 전달한다.

달성군, 제1회 대통령기 전국파크골프대회 15일 막을라

논공 위천 '파크골프장' 연간 8만여명 이용 인기 파크골프 중심도시 우뚝

달성군이 국내 첫 대통령기 전국파크골프대회를 연다. 전국 최고 수준의 다양한 파크골프 시설이 대회 유치 기반이 됐다는 평가다. 제1회 대통령기 전국파크골프대회(주최·주관: 대한파크골프협회/대구시파크골프협회)가 오는 15,16일까지 이틀간 논공 위천 파크골

프장에서 열린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논공 위천 파크골프장과 구장들까지 공인인증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유지·개선에 끝없는 관심을 기울여 왔다"라고 말했다. 최 군수는 "제1회 대통령기 전국파크골프대회를 계기로 달성군 내 파크골프 시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파크골프는 신체 부담이 적으면서도 적정 활동량을 보장할 수 있는 운동이다. 기존 골프 종목의 규모를 간소화하면서도 흥

미로운 경기 진행이 가능하다. 노인·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군은 이 같은 파크골프의 인기에 주목해 지역 내 파크골프장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대회가 열리는 논공 위천 파크골프장은 2023년 4월 논공 위천리 648번 일대 5만 9900㎡에 3억 2000만 원을 투입, 18홀 규모로 개장했다. 올해 부대시설 설치 등 추가 공사를 거쳐 36홀로 확장 조성하여 파크골프 마니아어떤 한

가지 일에 몹시 열중하는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파크골프장은 지난 4월 사단법인 대한파크골프협회로부터 공인인증구장 승인을 받아 전국 최고 수준의 시설임을 입증하기도 했다. 대구에서는 2번째로 이뤄진 공인인증구장 승인이다. 39개 클럽, 회원 1057명 등 연간 이용 인원이 7만 9000여 명에 달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논공 위천 파크골프장을 포함해 총 8개의 파크골프장(180홀)을 조성·운영 중이다.

이용 규모는 △ 268개 클럽 △ 회원 6503명 △ 일 이용객 2085명 △ 연간 이용인원 46만 2000여 명에 이른다. 명실상부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중심도시다.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과 여가생활을 책임지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추가로 6개의 파크골프장(144홀) 공사·용역도 진행 중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총 14개 파크골프장(324홀)을 갖춰 전국 최대의 파크골프장이 들어선다. 조여은 기자

윤석준,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교육도시 건설

동구청, 다(多)가치 청렴 콘텐츠 공모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생 모집

동구청이 다(多)가치 청렴 콘텐츠 공모전에 이어 2024 제1기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생을 모집한다.

다(多)가치 청렴 콘텐츠 공모전

동구청은 오는 18~4월 30일까지 우리 지역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다(多)가치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연다. 동구에서 처음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나, 너, 우리' 일상의 청렴 이야기를 주제로 △청렴 동영상 △청렴 엽서 △청렴 캘리그래피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동구청 홈페이지 공지/홍보 게시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1,2차 심사를 거쳐 6월 중 발표한다. 공모작들은 올해 6월 진행되는 'The 청렴(한) 문화제' 기간 동안 구청 본관 로비에 전시되며, 이후 청렴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청렴 문화를 전파하는데 활용된다. 조미경 기자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생 모집

동구청은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12~20일까지 '2024 제1기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2024 대구 동구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은 지역 학생들에게 맞춤형 온라인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영어회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기수별 3개월 과정, 총 3기로 운영된다.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100명에게는 수강료 전액 지원, 일반학생은 기수별 500명씩 70%의 수강료를 선착순 지원한다. 희망자는 동구 원어민 화상영어 누리집(www.dongguenglish.co.kr)에서 회원 가입 후 사전 레벨테스트를 거쳐 선발한다. 이후 원어민 강사와 함께 1:2 또는 1:3 방식으로 수준별 맞춤형 수업이 진행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영어교육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교육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2022 싱가포르식품박람회 대구식품 공동홍보관.

대구시, 식품 수출 '9000만 달러' 드라이브 건다

내수 위주 식품산업 한계 인식 수출 중심 D-푸드에 적극 육성

대구시가 내수 위주의 지역 식품산업을 수출 중심으로 전환하는 '2024 대구 식품산업 육성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해외 한민족 최대 축제인 LA 한인 축제와 대만 최대 식품박람회인 FOOD TAIPEI에 대구 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해외 유통망 구축에 나선다. 안중근 대구시 경제국장은 "지역 식품업체에 대한 원스톱 패키지 지원으로 내수 위주의 지역 식품산업 구조를 수출 중심으로 바꿔 나가겠다. 해외 유통망 확충을 통해 대구 식품이 해외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대구의 식품산업 매출액은 24조 4000억 원 규모로 5년간 연평균 5.1%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내수 위주로 국내 경기의 영향을 쉽게 받고 브랜드 인지도도 내세운 대기업과 경쟁에서 밀릴 뿐 아니라 가격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한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시는 지역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중심의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출 주도의 글로벌 대구 식품산업 육성에 돌고구를 마련한다. 원스톱 지원은 수출 잠재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발굴 △1단계 국가·시장별 맞춤형 제품개발 지원 △2단계 수출에 필요한 할랄, 코셔, FDA 등 각종 국제 인증 지원 △3단계 국내외 판촉 지원으로 대구 식품의 수출 확대를 내용으로 한다. 시는 대구 식품의 해외 마케팅 강화를 위해 올해 9월에 열리는 LA 한인 축제에 대구 식품(D-푸드) 공동 홍보관을 운영한다. LA 한인 축제는 연 40만 명이 관람하는 해외 한민족 최대 축제로 미국 시장에 대구 식품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올 6월 열린 예정인 대만 최대 식품박람회인 대만 식품박람회(FOOD TAIPEI)에는 대만의 테코(TECO) 그룹과 협력으로 대구 식품 공동관을 운영해 D-푸드 홍보와 마케팅으로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 식품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선다. 지역 식품단체인 (사)대구식품협회가 중심이 돼 국가별 해외시장 정보 제공과 식품 업체들 간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도 활성화하는 등 민관협력체제도 구축한다. 시는 이번 수출 중심의 원스톱 지원으로 2024년 대구 식품의 수출액을 전년대비 16.9% 증가한 9000만 달러까지 올린다. 조여은 기자

대구 경북대병원에 공보의 4명 투입

일반의 4명 배정... "교육 후 산부인과 진료 공백 메워"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사태로 수술 차질 등의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구의 일부 상급종합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투입된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 등 158명이 이날부터 4주간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거점급대 병원 등에 파견돼 의료공백 해소에 나선다. 대구에는 지역 거점급대 병원인 경북대병원에 공보의(일반의) 4명이 배정됐다. 공보의들은 11~12월 병원에서 교육 등을 받은 후 오는 13일부터 본격 진료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군의관들의 투입 시점과 인원 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경북대병원을 제외한 대구지역의 다른 상급종합병원에는 군의관과 공보의가 파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상급종합병원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 가운데는 마취과 전문의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취과 전공의가 대거 이탈하면서 수술 중단과 지연이 속출할 때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 1994명으로, 해당 병원 전체 전공의의 1만 2912명의 92.9%에 해당한다. 대구의 경우 6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814명 중 734명이 사직서를 냈다. 병원별로는 △경북대병원 본원 193명 중 179명(92%) △계명대 동산병원 182명 중 175명(96%) △영남대병원 161명 중 130명(80%) △대구가톨릭대병원 122명 중 112명(91%) △칠곡경북대병원 87명 중 81명(93%) △대구파티마병원 69명 중 57명(82%)이다. 공식적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이날 현재까지 영남대병원 1명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수련병원 대부분은 복귀 인원이 전무하거나 복귀 인원 현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의료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꼼꼼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중 일부를 맡긴 데 이어,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충분한 인력은 아니지만,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목표로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2차 인력을 모집해 4주 후에는 더 많은 인력을 전공의의 대체 인력으로 파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황태용 기자

중구청, 100세 바라보는 어르신 생일잔치



중구청이 뜻깊은 행사를 마련했다. 중구 남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남산2동 행정복지센터가 손잡고 남산2동에 사는 최고령 어미(97) 할머니를 모시고 사랑의 생신상을 차려 드렸다. 생신상을 받은 어르신은 "오늘 협의체와 동 직원들이 직접 찾아와 상을 차려주고 축하 해주니 너무나 무뎠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세현 위원장은 "즐거워하는 어르신의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소외

되는 주민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외계층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산2동 지사협의 사랑의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은 최고령 저소득 홀몸어르신을 방문해 생신상을 차리고 축하하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특화사업이다. 12월까지 고령 저소득 홀몸어르신 2명을 발굴해 사업을 진행한다. 남산2동 지사협의 의약품구리, 식품구리 등을 지원하는 '희망꾸러미사업', 남산하늘리협동조합과 함께 '전통발효음식 장담그기'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소외계층 돌봄 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사랑 나눔을 실천한다. 조여은 기자

달성군, 치매기억카페 지정

달성군보건소는 '치매안심거리를 조성하고 운영한다.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치매안심개선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지정됐다. 달성군보건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달성군지부 간 체결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하빈면 동곡 칼국수거리'가 달성군 1호 치매안심거리로 선정됐다. 해당 지역 약 15곳 상점이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동곡 칼국수거리에 위치한 카페 2곳은 '달성군 3·4호 치매기억카페'로 추가 지정됐다. 기억카페 현판을 게첨, 대구 치매센터와 연계, 올해 치매퀴즈캠페인 운영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보건소는 "올해 처음 조성되는 치매안심거리는 지역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 함양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종합

대구광역시보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3



DGB금융그룹, 대학생봉사단 40명 띄웠다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은 DGB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지역 곳곳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대학생봉사단을 발대했다. 2013년부터 DGB사회공헌재단에서 직접 운영 중인 대학생봉사단은 올해 지역 대학생 40명으로 구성됐다. 한 해 동안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포용금융교육 지원, 사회복지시설·기관 봉사활동, 환경보호

관련 홍보 콘텐츠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따뜻한 금융을 실천한다.

DGB금융그룹은 대학생봉사단 구성원이 청년인 만큼 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정기적인 활동비 및 교통비를 지급하고, 우수활동자와 우수활동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경북도의회,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중추적 역할

의원연구단체, 법정책 연구용역 지역 현안 해결 정책 대안 발굴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가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대안을 발굴에 나섰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 입법과 정책 대안 개발을 위해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된 연구 모임이다.

이들은 연구용역 추진과 토론회 간담회 열고 있다.

다양한 활동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정책의회로서 기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의원 정책연구를 더욱 활성화 시켜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문화된 의원 연구 활동으로 도민의 삶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 제시로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2023년에는 16개의 의원연구단체가 결성, 세미나와 간담회를 열었다. 14건의 지역의 현안과제의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조례 제개정 8건, 도정질문 5회, 정책반영 3건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했다.

'경북도 경계지역 발전정책 연구회'는 경북도와 각 시·군 담당공무원과 경계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와 전문가를 초청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 낙후된 지역의 문제점과 개선 대



책에 열정을 쏟았다.

'경계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관광자원 개발정책 연구'와 '지역콘텐츠 활성화 연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전국 최초의 관련 조례(경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 '경상북도 로컬코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경북도 어린이 의료정책 연구회'가 추진한 '경북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는 으뜸이다.

지역의 청소년소아과병원 부족 문제를 의료협진으로 원격의료 시스템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 결과 올해 '김천의료원 어린이 원격협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꿀벌바이러스연구회'이 활동도 눈여겨볼만 하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꿀벌 실종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북지역 꿀벌 바이러스병 발생 현황 조사 및 대응 방안'을 연구했다.

대응방안 연구에서 레이크시니아바이러스(LSV)가 경북 지역 내 상당히 확산되는 문제를 발견했다. 국내에서 확인된 바 없었던 LSV8의 발생을 확인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회의 대표인 박순범 경북도의원은 꿀벌 바이러스 확산과 새로

운 바이러스 유입을 감시연구할 꿀벌바이러스 연구소의 설립 필요성을 제안하고 강조했다.

올해 경북도의회의는 정책연구 활동으로 지역개발, 역사문화, 교육정책 등 경북 도정을 견인할 정책개발과 도민들의 삶의 질 제고 등 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현재 '경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 '경북도역사문화의 지속가능발전 연구회', '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는 각 분야별 심도 있는 연구 활동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경북도 해수담수화시설 발전연구회 △경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연구회 △

경북도 지방세 연구회 △경북도의회 풍수해 방재대책 연구회 △소상공인 지원 정책 연구회 △경북도 학교폭력 정책연구회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연구회 △농어촌 청년정책 연구회 △경북도 미래 하수도 정책 발전연구회 등 9개 연구단체가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는 2022년 8건, 2023년 15건의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올해 12개 의원연구단체가 지방시대를 이끌어 갈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성용 기자

경북교육청, 특수교육 공모사업 확대

특수교육사업 110교 60여팀 선정해 지원

경북교육청은 특수교육의 내실화와 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2024 특수교육 관련 통합 공모로 총 8개의 공모사업에 110교, 60팀을 선정 지원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특수교육 공모사업 추진으로 장애 학생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여 희망하는 직종에 도전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특수교육 공모사업으로는 △정다운 학교 △통합교육 거점유치원 △문화 예술 체육활동 △장애 학생 재능 키움 △어울림 인권 동아리 활동 △고등학교 과정 전환지원 프로그램 △특수교사연구 동아리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총 8개 영역의 사업을 지원한다.

정다운 학교 사업은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업을 통한 통합교육의 성과를 제고하고 다양한

어울림 교육활동과 일반화 모델을 개발한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초·중·고교 대상으로 8교를 선정해 교당 400만 원을 지원한다.

장애 유아의 사회적 역량과 자립심을 강화하고 비장애 유아에게는 더불어 살아가는 올바른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통합교육 거점유치원 4개원 선정하여 원당 400만 원씩을 지원한다.

장애 특성에 적합한 문화 예술 체육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 학생의 소질과 재능을 살리는 교육 기회를 제공, 특수학교 4교를 선정한다. 교당 500만 원~1000만 원 이내로 차등 지원한다.

특수학급과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를 대상으로 문화 예술 동아리 40팀을 선정, 동아리당 100만 원 내외로 예산을 지원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성공적 사회통합을 위한 미래 역량 교육의 하나로 자격증 취득 과정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나도 할 수 있어"라는 주제로 장애 고교생 200명을 선정, 자격증 취득에 드는 교재비, 학원비, 시험전형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감나무 석회유황합제 적기 살포 방제 효과 UP

적기 방제 안정적인 감 생산 활동 병해충 밀도 줄여 안심



감나무주머니각지벌레 동근무늬낙엽병

경북농업기술원은 감나무 발아기 전까지 병해충 밀도를 낮출 수 있는 석회유황합제 살포를 당부했다.

겨울철 고온 현상 등 기상 이변으로 월동 병해충 발생이 증가해 큰 피해가 우려된 탓이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지난해 병해충이 많았던 재배지에서는 낙엽과 과실 등 잔재물을 제거 후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해 병충해 밀도를 줄이고, 감 생육기에는 병해충 예찰 정보를 이용, 적기 방제만 해도 안정적인 감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석회유황합제는 석회와 황을 섞어 만든 친환경제제로 과수원에서 발생하는 월동 병해충의 밀도를 낮추는 방제효능이 있다.

생육기(5월~8월) 농약 사용 절반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감나무에서 문제가 되는 월동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는 석회유황합제의 적기 살포가 가장 중요하다.

석회유황합제의 살포 시기는 3월 중순이다. 보통 발아 직전인 눈의 인편이 2mm 정도 벌어졌을 때(Ⅲ~Ⅳ) 살포하는 것이 적기이다.

단, 2월 하순쯤 미리 기계유황제를 살포했을 경우 20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석회유황합제를 처리해야 한다.

개화된 상태에서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하면 약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개화 시기를 염두에 두고 살포 일정을 정해야 한다.

4·10 총선 경산 국힘 조지연 vs 무소속 최경환 치열

조지연, 박근혜 '복심' 유영하 만나 승리투합 최경환은 캠프 개소식 친박 인사 출동 세과시



조지연 최경환

TK지역 최대 격전지인 경북 경산시 총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되고 있다.

경산시 선거구의 국민의힘 공천자 조지연 예비후보(37·전 대통령실 행정관)와 무소속 최경환 예비후보(69·전 경제부총리)는 박근혜 정부때 각각

청와대와 정부 출신 '친박(친박근혜)'이지만 현재 외나무다리(총선)에서 만난 경쟁자다.

'친박 핵심'인 최 예비후보와 박 전 대통령 재임 때 4년간 청와대에서 보좌한 조지연 예비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서로 '내편'이라는 선거전략을 펼치고 있다.

최경환 예비후보는 지난달 25일 열린 선거 캠프 개소식에서 '박근혜 마케팅'에 시동을 걸었다.

행사에는 서정원·박인상·김광림·노철래·이우현·이원영·현기환 전 의원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친박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친박 세과시를 할 것이다.

조지연 예비후보는 지난 9일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민의힘 공천(대구 달서갑)을 받은 유영하 예비후보와 만나 선거승리 결의를 했다.

조 예비후보의 만남은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조 예비후보쪽이라는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두 사람의 의기투합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잇따른 만남으로 우호적인 관계이고,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 출신인 조지연 예비후보

의 정치적 환경도 고려했을 것으로 지역 정치권은 보고 있다.

조 예비후보는 박근혜·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한 청년 정치인이다.

조 예비후보는 자신의 SNS에 유 예비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유 예비후보와의 만남 사실을 알리며 "이번 총선, 국민의힘 승리를 다짐하며 (사진) 한 컷을 찍었다."

대학교 2학년 시절인 2007년 박근혜 대통령 경선 후보 청년보좌역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해 2012년 대선 캠프 합류,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4년을 보좌했다"고 밝혔다.

이러 "유영하 후보의 격려가 큰 힘이 됐다. 앞으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한걸음 걸어가겠다"고 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여당 지역 정서와 집권 세력의 강력한 지원이 감점인 조지연 예비후보와 급배치 5선에 도전하는 최경환 예비후보의 불꽃튀는 박빙 게임이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를 얻으려는 '박심(朴心)' 구애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경은 기자

대구교육청, 초등 생존수영 실기교육

3·4학년 대상 23억3천만원 투입

대구교육청은 23억 3000만 원을 투입, 초등 생존수영실기교육을 운영한다.

학생들이 물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 수중 위기 상황에서도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교육청은 코로나 이후 2022년 2학기 초등 학교 4학년, 2023년에는 3·4학년으로 대상으로 생존수영실기교육을 했다.

올해는 초등 3·4학년 학생과 수영장을 보유한 학교의 전학년 학생 외에 군위군 소재 5·6학년 학생도 포함해 4만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올해 초등 생존수영실기교육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생존능력 △수상 활동 시 타인을

돕기 위한 구조기능 △수영능력을 키우기 위한 수영기능을 중심으로 1일 2시간씩 5일간 총 10시간 과정으로 편성, 관내 33곳의 수영장에서 진행된다.

물에 대한 적응 연습과 발차기, 구명조끼 착용법, 주변 물품을 이용한 부유물뜨기, 장비 구조법, 자기 구조법, 보빙, 영병 익히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대구교육청은 생존수영실기교육에 필요한 학교별 수영장 배정, 차량 임차 등 행정업무를 교육청에서 통합 추진, 교육에 따른 학교 현장의 행정 업무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물에 대한 적응력과 위기 대처요령 등을 익혀 수상 안전사고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온라인 마케팅 지원 업체 모집

경주시가 지역 내 우수상품의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팔을 걷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우수상품 브랜딩 강화를 위해 '경주시...

있는 농수특산물 분야 업체가 대상이다. 다만 단순 수입 유통 상품 사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가 배포한 안내자료 내 QR코드를 인식한 후 구글폼(온라인 신청서)으로 신청하면 된다.

내국인 숙박가능 경북 1호 도시민박업 '오픈'

경주 황촌마을서 마을호텔 4곳 내국인 숙박 특례 전환 현판 행사

경주시가 빈집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있다. 빈집 활용 사업으로 지역소멸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11일 행복황촌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마을호텔 '행복꿈자리'에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내국인 숙박 특례 전환' 현판식을 가졌다.

사업은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외국인만 가능하던 숙박에서 도시재생을 위해 설립된 마을기업에 한해 내국인도 숙박할 수 있게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본격화됐다.

마을호텔 '행복꿈자리' 외에도 블루플래닛, 황오여관, 스테이황촌 등 마을호텔 3곳이 함께 내국인 숙박 특례전환 현판을 받았다.

행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정수경 행복황촌 협동조합 이사장을 포함해 마을주민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내국인 숙박 특례전환'은 경북 1호이자 전국 2호로 이날 현판식은 그간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국인 숙박 특례전환 현판을 받은 마을호텔 4곳 외에도 경주맨션, 황오연가 등 9곳이 상반기 중 마을호텔 등록을 준비, 도시재생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곳들은 모두 방치된 빈집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마을호텔로 전환하면서 지역 상권 회복과 빈집 정비의 일석이조 효과가 예상된다.

정수경 행복황촌 협동조합 이사장은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마을호텔의 수익의 일부가 마을의 발전을 위해 다시 환원되는 선순화 구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경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행복황촌이 경주 로컬여행의 명소가 성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와 5000만 경주관광의 시대에 도시재생 사업지구 내 국·내외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을호텔이 들어서 기대가 모아진다"라고 강조했다.

주시장은 "주민들이 운영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경주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주)월성종합개발 장학금 1000만원 기탁 (주)월성종합개발이 미래 경주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육성과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장학금 1000만원을 (재)경주시장학회에 기탁했다. 이 회사는 2019년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6회에 걸쳐 6000만원을 기탁하는 등 기업이익의 지역사회환원으로 나눔 경영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청년에 투자하는 경주시... "든든한 후원자"

청년이 머무는 도시 조성 취업·창업 전방위적 지원

경주시가 지역 청년 누구나 교육받고, 일할 수 있는 도시 건설을 위해 전방위적인 맞춤형 정책을 나선다.

지역 청년들의 취·창업을 돕기 위해 조성된 경주시 청년센터 '청년고도'가 인기몰이 중이다. 경주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2021년 4월 마련된 '청년고도'는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들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취업 면접에 필요한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면서 구직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것은 물론,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지역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도 인기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경주에 주소를 둔 19~34세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생애 1회 한도로 월 20만원씩 최대 12월 간 지원한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은 경주에 주소를 둔 19~34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 이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워라밸 지원 사업'도 빼놓을 수 없는데, 경주에 거주하면서 거주 내 직장에서 3년 미만 재직된 19~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최

대 20만원의 자기계발비를 지원한다.

경주지역 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체 채용 초기 건강검진비 10만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신규경력직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도 청년들에게 큰 인기다.

경주시 거주 19~39세 예비 창업팀을 대상으로 1팀당 최대 1200만원과 공통경비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지원 사업'도 창업에 관심 있는 지역 청년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 경주시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취업, 창업, 주거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며 "경주시는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열정적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민관 합동 오는 29일 까지 유치원·초등 주변정비

경주시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 29일까지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한다.

일제정비는 경북도, 경주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옥외광고물협회 경주시지부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추진된다.

합동 점검반은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을 중점 정비한다.

올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 장소인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에 설치된 정당현수막,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 도로·가로변 등도 함께 일제 정비한다.

정비 대상은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불량간판,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로 적발 시 즉시 철거 등 행정정비 한다.

최진 도시계획과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동, 손님맞이 시민친절 계몽운동...

경주시 중부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최근 봉황로 문화의거리와 중심상가 일대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를 기념하는 거리계몽운동을 했다.

이날 정희택 경주시의원, 최정순 중부동장,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20여명이 참여했다. '청년미소를 아시아로! 세계로!'라는 구호를 내

걸고 경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친절함 미소로 맞이해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시민참여계몽운동을 했다.

정정숙 주민자치위원장은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원 거리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어 뜻깊고, 주민들에게도 외국인 등 관광객을 밝고 친절할 모습으로 맞이하도록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결혼이민여성 20세대 친정방문 환송행사

경주시는 지난 9일 평생학습가족관에서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 대상자로 선정된 20세대 가족들을 초청해 환송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임활 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이상욱 국제친선교류협회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경주시국제친선교류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자녀양육과 경제적 여건 등으로 오랜 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여성들을 위로하고 안정적인 거주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중국 11세대, 필리핀 3세대, 캄보디아

2세대, 몽골 2세대, 베트남 1세대, 인도네시아 1세대 등 총 20세대 가족들이 선정됐다.

이날은 결혼이민여성 20명 대상으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홍보를 위한 민간선대사 위촉식도 함께 진행했다.

세대별 200만원을 지원하는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총 235세대에 4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영덕 청송 영양 청도 울릉

청송군보건의료원 농촌공공의료혁신 선도



오도창 영양군수는 12일(화) 오후 영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사)한국의 식업중앙회 경북지회 영양군지부 제32회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512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한국의식업중앙회 청송군지부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남부지방산림청장 직원과 소통간담회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이 지난 8일 영덕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하여 주요 산림정책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영덕국유림관리소 직원들과 소통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에이치그라운드 정영애 대표 영덕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에이치그라운드(주) 정영애 대표가 지난 8일 영덕군청에서 김광열 영덕군수를 만나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조여은 기자



청도경찰, 인권의식 제고 위한 현장교육 청도경찰서는 지난 8일부터 인권행동강령의 생활화와 체질화를 통해 과소적응을 인식시키고자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조여은 기자

의료사각지대 해소 혁신적 모델로 전국 지자체 보건소 벤치마킹 줄이어

‘하동군보건의료원추진단’은 지난 7일 청송군보건의료원을 방문해 공공의료정책 핵심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하동군이 ‘하동군 보건의료원’ 설립을 앞두고, 청송군보건의료원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송군보건의료원은 전국 15개 지역공공의료원 가운데 유일하게 진료부문을 민간위탁·운영해, ‘농촌 공공의료의 모범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8개 진료과목 운영으로 관내 유일 종합병원의 기능을 하고 있다.

내과·가정의학과·정형외과 등 의료수가가 높은 3개과에는 수탁기관 소속 전문의가 봉직(페이닥터)로 근무하고, 그 외 소아청소년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치과·한방과·응급실은 보건의료원 소속 공중보건의로 운영하고 있다.

또 농촌에 꼭 필요하지만 접하기 어려운 안과·산부인과 등은 수탁기관인 안동성소병원과 협진 체계를 마련해 본원 전문의가 월 1회 찾아가는 특별진료를 하고 있다.

2009년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긴급 수술환자를 닥터헬기로 15분 이내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청송군의 노력은 지방소멸과 공공의료 위기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농촌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민간과의 협업에서 실마리를 찾아우기를 기회로 만든 대표적인 혁신 모델로 전국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 단양군보건소가 2020년을 시작으로 3



차례, 경기도 가평군보건소 2차례, 그 외 강원도 평창군보건의료원, 충남 서천군보건소, 구미시보건소, 포항남구보건소, 경북대보건의대학원 등 여러 공공기관이 청송군을 방문해 의료원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과 위탁진료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했다. 금년 2월에는 평창군보건의료원의 연구용역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방문했다.

특히 이번 ‘하동군보건의료원추진단’의 경우, ‘하동군보건의료원’을 개원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단장인 하승철 군수가 직접 나서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청송군을 방문했다는 것에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

청송군보건의료원장은 보건의료원 운영 전반과 진료부분 민간위탁 현황, 그 외 청송군만의 특색

있는 의료진 숙소, 직원휴게실, 생생재활물리치료실, 출산육아공유 플랫폼 등 시설현황을 직접 브리핑했다.

이 자리에서 청송군보건의료원의 공공의료모델 혁신개혁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 중 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필요예산 확보로 건강증진센터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치유재활센터 건립 추진, 지방소멸대응기금 7억원 투입으로 생생재활 물리치료실 확충 및 체외충격파 치료기, 고출력레이저, 저주파자극기 등 다양한 전문 치료장비 확보 등 노후 장비 교체로 열악한 농촌환경에서 우수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청송군은 계속해서 노력 중임을 강조했다.

한편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시 청송군보건의료원의 신속한 진료와 대처를 전국 우수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유능한 의료진 확보와 진료분야의 다양화, 24시간 응급실 운영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외래와 입원을 포함한 청송군보건의료원의 연간 진료 실적은 2022년 8만7367건에서 지난 해 9만5759건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보건의료원은 진료부분 민간위탁 운영으로 주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청송군의 대표적인 혁신모델이며, 전국 지자체와 보건소가 따라가야 할 모범사례로 손꼽힌다.”며, “농촌과 도시의 의료격차와 의료 취약지 근무기피 등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 ‘청소년수련원 캠핑장’ 재개장

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밤하늘을 감상하기 최적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의 흑한이 지나고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며 ‘청소년수련원 캠핑장’이 지난 8일 재개장했다.

만물이 태동하며 자연을 갈망하는 캠핑객들의 마음도 움트는 봄, 37개의 사이트, 샤워시설(수수가

능)과 북카페, 깨끗한 공기과 수려한 자연경관이 반기는 ‘청소년수련원 캠핑장’이 여러분을 기다린다. 작년 한 해에만 약 1만6000명의 캠핑객이 다녀갔다.

반딧불이 생태숲, 천문대, 청소년수련원 등이 아이들이 걱정 없이 자연에서 뛰어놀 수 있는 시설들이 마련돼 있어 올해에는 더 많은 방문객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아시아 최초 ‘국제밤하늘보호공원’내에 자

리하고 있는 캠핑장은 밤하늘을 감상하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수하계곡 흐르는 물 소리를 배경으로 ‘자작자작’ 타는 모닥불, 그 위로 쏟아지는 은하수, 누구보다 먼저 봄을 만끽하기 위해 당장 영양군 ‘청소년수련원 캠핑장’으로 향하자.

캠핑장 예약은 온라인(<https://www.wyig.go.kr/np>)으로 가능하며 당일 예약도 가능하니 참고하면 된다. 권윤동 기자

울릉군, 울릉 국가시행사업 관련 주민의견 건의

울릉군 과 울릉군의회 및 각 마을별 주민대표자들은 지난 8일 포항지방수산청에 울릉국가시행사업 관련 주민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임영훈 포항지방수산청장 및 주요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가감 없이 주민의견을 건의하고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국가시행사업 주민의견 내용으로는 도동항 방파제 연장사업과 관련 항로 굴곡부 조정 등과 저동항, 사동항, 남양항, 태하항, 현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전반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포항지방수산청장은 울릉군에서 관심을 가지는 국가어항사업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윤환 기자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정기총회

(사)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는 지난 8일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노인회 임원 및 읍면 경로당 회장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김하수 청도군수, 김효태 청도군의회 의장, 도의원, 군의원,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지역 관계자가 내빈으로 참석해 군지회의 지역사회 중심 역할을 지지하고 격려했다.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 사업실적과 결산보고,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감사임명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황윤성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도군의 균형 성장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대한노인회가 1만 7천여 회원과 함께 더 행복한 청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조여은 기자



경북

봉화 분천산타마을 주민들 선진지 견학...주민역량강화



관광지로 성공한 양평수미마을 견학 성공 사례와 주민참여 관한 내용 학습

봉화군 분천산타마을 주민 37명은 지난 6일 경기도 양평 수미마을을 방문했다. 산타마을은 백두대간협곡열차(V-train)의 시발점인 분천역에 백두대간이라는 자연 자원과 낙동강의 비경, 동심을 자극하는 산타클로스 이미지를 접목해 1년 내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한여름과 한겨울 등 연 4회 산타마을을 운영해 방문객 33만 명을 유치하고, 32억 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내는 봉화군의 겨울 대표 관광지다. 이번 방문은 봉화군에서 진행되는 '분천산타마을 주민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분천산타마을과 비슷한 마을에 방문해 성공 사례 학습 및 체험을 통해 관광지로서의 마을 발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분천산타마을 주민들은 먼저 마을 대표자로부터 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 수미마을의 성공 사례와 주민참여에 관한 내용을 학습했다. 이후 체험중심 마을이라는 콘셉트에 맞게 도보로 이동하며 송어잡기 돛방문, 피자만들기 체험, 다육이 화분 만들기 등을 직접 경험했다. 한편 분천산타마을은 봉화군에서 '겨울왕국분

천산타마을관광명소화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들이 시행 또는 계획 중에 있어, 앞으로 관광지로서 더 큰 성장에 예상되는 곳이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이번 견학은 앞으로 마을 주민들이 개인 또는 공동체로서 사업을 구상하고 분천산타마을을 봉화군 대표 관광 명소로 발돋움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타마을은 경북도, 코레일, 산림청, 봉화군, 마을 주민의 협업으로 봉화 산타마을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전희남 분천2리 이장은 "분천산타마을과 유사한 마을을 실제로 방문해 보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마을 주민들 모두 만족하고 즐거워했다"며 "이러한 견학을 통해 분천산타마을

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윤여성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해 분천산타마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주민들이 화합해 스스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힘을 얻은 시간이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영천 영주 봉화 고령 의성

최기문 영천시장은 12일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리는 새영천 알타이단발대식에 참석해 영천을 널리 알리는 데에 최선을 다해줄 당부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12일 오후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2024년 농업인 전문교육 통합 개강식에 참석한다.

봉화군가족센터 '부모 자녀 교육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봉화군가족센터는 '2024년 상반기 부모자녀교육 - 알파세대 자녀 이해, M세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18일부터 4월 25일까지 주 3회 관내 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30명과 자녀 대상이다.

이 프로그램은 'M세대' 부모와 2010년 이후 출생 '알파세대' 자녀와의 소통을 위해 기획됐다.

또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유아기,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세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총 10회기 동안 부모를 대상으로 그림책 심리를 활용한 자녀 이해 소통법, 동화로 만나는 재미있는 심리학 이야기, 사춘기 자녀기질에 따른 양육 조정 특강과 미술, 유리공예, 레진아트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한 부모-자녀 상호작용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2024년 상반기 부모자녀교육 참여 희망자는 오는 13일까지 봉화군가족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맞춤형 민·관협력 특화사업

고령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월부터 군협의체를 시작으로 2024년도 지역별 맞춤형 특화사업을 실시한다.

이 특화사업은 지난달 23일 진행했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회'에서 군·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에 대하여 심의 및 선정하고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받는 '함께모아 행복복고' 사업이다

올해 진행되는 사업은 '일촌보다 이웃사촌'이라는 목표를 두고 군협의체 특화사업 '복지정보 책자발간, 보호보조기 지원, 소원우체통'과 읍면협의체 특화사업 '사랑의울림, LED등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반가운얼굴, 의료보조기 지원, 행복e커머스,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고령군연합회

제22·23대 임원 이취임식 개최 교육발전기금 200백만원 기탁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고령군연합회는 지난 8일 고령군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여러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고령군연합회 제22·23대 임원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교육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지난 제22대 회장을 역임한 배문휴 회장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고령군연합회를 위해 도움주신 회원 및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연합회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전했다.

신임 제23대 이덕봉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연합회와 고령군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제23대 이덕봉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연합회와 고령군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제23대 이덕봉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연합회와 고령군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제23대 이덕봉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연합회와 고령군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재)영주문화관광재단, 148아트스퀘어 제7기 입주작가 모집

시각예술 분야 지역작가·타지역 선발 큐레이터와 평론가 섭외로작가 지원

(재)영주문화관광재단은 4월 14일까지 '2024년 레지던시지원사업' 입주작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레지던시지원사업은 경북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영주시와 (재)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문화예술지원프로그램이다.

재단은 그간 다양한 작가 지원 프로그램과 더불어 지역연계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올해 7년 연속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Artist in 148'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창작공간 지원과 전시회 개최를 비롯해 작가-평론가 매칭 컨설팅과 입주작가 간 협업 작업 지원 등 입주작가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작가는 개별 창작 공간과 매월 소정의 창작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전시 개최



다"고 전했다. 신임 제23대 이덕봉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연합회와 고령군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제23대 이덕봉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연합회와 고령군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센터로 협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관제요원들은 신속하게 실종 지역

지원. 작가간 '영주' 주제 협업작품 진행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영주시에 거주할 수 있으며 타 기관 입주 예정이 없는 시각 예술 분야 작가로 지역작가 1인, 타지역 작가 2인을 선발한다.

1차 서류심사와 인터뷰 심사를 거치며 최종 합격자는 4월 19일 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입주를 원하는 작가는 (재)영주문화관광재단 누리집(www.yctf.or.kr)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접수 기간 내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재단 문화예술팀(☎054-630-87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작가들의 창작역량을 키우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입주작가 모집에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영천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관제요원의 적극적인 관제를 통해 영천경찰서에 신고된 미귀가자를 조기 발견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영천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오전 11시경 집을 나간 후 미귀가한 A 씨(53)의 가족이 신고함에 따라 인상착의 등을 파악한 후 오후 10시경 스마트도시

통합센터로 협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관제요원들은 신속하게 실종 지역

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덕봉은 신임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교육발전기금 기부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성금 200만 원을 쾌척했다.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성현덕 이사장은 "기탁받은 교육발전기금은 장학금 지원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투명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령군(이남철 군수)은 "교육발전기금을 기탁해준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고령군연합회에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3년간 묵묵히 회원들과 함께 한국후계농업경영인을 이끌어 주신 배문휴 회장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회원들과 함께 나아가실 이덕봉 회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인근 CCTV 50여 대를 집중 모니터링해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미귀가자를 발견하고 통보하여 미귀가자 A 씨는 무사히 가족들에게 인계될 수 있었다.

소중한 인명을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관제요원은 11일 영천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영주시, 나무주사 작업 주요 조형소나무 보호

영주시는 11일부터 시내 공원 및 조경지 44개소에 식재된 주요 조형소나무 2508본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용 나무주사 작업을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병원체)에 감염돼 소나무류(기주수목)가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mm의 가는 선충으로서 매개충(북방수염하늘소)의 몸에 서식하다가 매개충이 건강한 소나무류의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생기는 상처부위를 통해 나무줄기에 침입한다.

침입한 재선충은 수액이동을 저해해 재선충병 감염 소나무는 100% 고사하게 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나무주사 작업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효과가 있는 약제를 수간에 구멍을 뚫어 주입하는 것으로, 약 2년간 소나무재선충병에 예방효과가 있다.

시는 한정공원 등 도시공원 16개소, 서원로 중앙분리대 등 도로변 주요 조경지 28개소를 대상으로 4천만 원을 투입해 방제용 나무주사 작업을 시행한다.

박상철 공원관리과장은 "나무주사를 통해 영주시의 우수한 조형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선비의 상징이자 영주시의 상징인 푸른 소나무의 풍경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영성군은 공공급식 수요에 맞춘 지역먹거리의 필요품목 생산과 더불어 연중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공공급식 공급 확대를 위해 의성로컬푸드 직매장 관리위탁 운영자가 간담회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직매장 관리위탁 운영하는 의성로컬푸드협동조합은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급식에 필요한 품목을 생산하는 신규농가 발굴과 더불어 참여농가의 필수품목 안정적 공급 및 다품목 생산 등의 협의를 위해 공공급식 참여농가 조직인 '의성군 공공급식 농가총화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의성군은 공공급식 수요에 맞춘 지역먹거리의 필요품목 생산과 더불어 연중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공공급식 공급 확대를 위해 의성로컬푸드 직매장 관리위탁 운영자가 간담회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직매장 관리위탁 운영하는 의성로컬푸드협동조합은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급식에 필요한 품목을 생산하는 신규농가 발굴과 더불어 참여농가의 필수품목 안정적 공급 및 다품목 생산 등의 협의를 위해 공공급식 참여농가 조직인 '의성군 공공급식 농가총화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소물리에 과정은 (사)한국국제소물리에협회와의 MOU체결을 통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소물리에 강사들의 강의를 제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와인 교육과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소물리에 270명을 배출했다. 올해 영천외인학교는 나이·성별·직업에 관계없이 와인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영천시민 우선으로 선발한다.

총 960명의 와인 전문인력을 배출했으며, 와인양조와 소물리에 과정을 통해 교육생들에게 양질

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소물리에 과정은 (사)한국국제소물리에협회와의 MOU체결을 통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소물리에 강사들의 강의를 제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와인 교육과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소물리에 270명을 배출했다. 올해 영천외인학교는 나이·성별·직업에 관계없이 와인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영천시민 우선으로 선발한다.



성주참의 마라톤대회에서 펼쳐지는 청림 캠페인

경북도성주교육지원청 직원 30여명은 지난 10일 '2024 성주참의 전국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청림 캠페인을 실시했다.

성주교육지원청은 청림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청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번 마라톤 대회도 그 일환으로 진행했다.

특히 전국에서 참여하는 대회인 만큼 '성주교육지원청, 청림 향해 달리go~'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반부패 청림 문화를 홍보하고 청림 실천 의지를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됐다.

성주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각종 행사 시 청림캠페인 실시, 청림 서한문 발송 등 청림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림의식 고취 및 청림문화 확산에 기여할 방침이다.

도재훈 기자



한울원자력본부, '전산화 인지재활 치료장비' 지원

울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세용)의 사업자지원 사업을 통해 '전산화 인지재활 치료장비'를 지원받았다.

이번에 지원받은 장비는 인지기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태블릿 PC를 통해 12가지 인지영역을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인지기능 향상 및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복지관은 시범 운영을 통해 이용자 선정, 평가, 그룹배정 등을 준비하고 상반기 중 이용자 모집 및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울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수 기자



안동 하천정비와 일제점검 홍수피해 사전예방 계획

안동시는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하천 내의 퇴적토 준설 등 하천 정비와 배수문 등 하천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천 내에 퇴적된 토사와 유수지장막 등은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고 있어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안동시는 지방하천의 퇴적토 토사와 유수지장막 등을 주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하아천, 내성천 등 하천 정비사업과 수해복구 사업, 기성제방관리, 하천 긴급 정비, 둔치 시설물 관리 등 하천 유지관리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최준길 기자

포항시, 도시 경쟁력 가시적 성과 눈앞에 '성큼'

첨단해양산업 R&D센터 상반기 준공 학산천과 해안둘레길 올해 내 완공 신산업 육성 거점과 정주 여건 개선 문화 산업의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

포항시는 올 한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정 전반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신산업 거점 구축과 정주 여건 개선, 문화 인프라 확충 등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향상에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 거둬갈 예정이다.

먼저 송도해수욕장 일원에 조성 중인 '첨단해양산업 R&D센터'는 현재 공정률이 85%로 올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인 R&D센터는 해양 신산업 육성의 거점이자 포항항 구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 시설이다.

센터가 문을 열면 해양산업 관련 R&D기관 및 기업 입주가 이어져 환동해중심도시 포항의 위상에 걸맞은 해양신산업 거점이자 해양레저산업 육성, 관련 창업 활성화 및 도시재생 촉진 등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도심하천 '학산천 생태복원'이 올해 마무리돼 물길을 따라 사람이 모이는 수변도시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오는 6월경 우현도시숲에서 중앙동 행정복지센

터 구간을 일부 개방 운영하며, 올해 말까지 동빈 내항까지 전체 구간을 완료해 시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쾌적한 환경과 휴식 공간을 제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전망이다.

아울러 호미반도를 따라 펼쳐진 남북으로 길게 펼쳐진 해안 둘레길이 올해 10월쯤 일부 단절 구간이 데크로드 등으로 연결, 전체 구간 개통으로 천혜의 바다 경관을 따라 걷기 좋은 길이 완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제1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포항시는 문화도시 핵심 거점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말 준공된 '구수협 냉동창고 복합문화공간'은 어업 전진기지였던 옛 산업시설을 리모델링해 해양 문화와 포항항 구항의 가치를 담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문화 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력 양성과 해양문화 콘텐츠 창·제작, 국내외 예술 교류의 핵심 문화 거점 공간으로 운영될 이 공간은 올 한 해에도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융복합 예술교육과 전시, 공연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들의 삶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도시의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포항에 사는 것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의 품격과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명영 기자



상주시 도남정수장 확장공사 준공식

더 많은 상주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길 열려

상주시 도남정수장 확장 준공식이 지난 8일 상하수도사업소내 도남정수장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로써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도남정수장 확장공사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외서면, 공검면 등 8개 지역 급수구역 확장에 따라 부족한 취수량을 확보하고자 시행됐다.



총사업비는 893억원으로 2019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4년에 걸쳐 진행됐다. 도남정수장 확장 20,000m³/일, 민산배수지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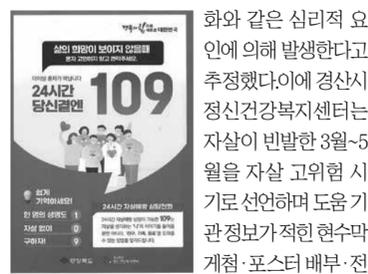
경산시,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 적극 대응

자살 고위험 시기 자살 예방 활동 홍보 및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경산시는 자살률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3월부터 5월까지 자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자살 고위험 대상 집중관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2022년 3월~5월 자살자 수는 같은 해 자살자 수의 27%, 2021년 3월~5월 자살자 수는 같은 해 자살자 수의 28%를 차지했다.

시는 이와 같은 현상이 겨울철에 비해 증가한 봄철 일조량, 꽃가루·미세먼지, 졸업과 구직 등 계절적 요인과 불면증, 상대적 박탈감, 우울증 심



화와 같은 심리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이에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이 빈발한 3월~5월을 자살 고위험 시기로 선언하며 도움 기

관정보가 적힌 현수막 게시, 포스터 배부, 전자기기 등을 통해 자살 예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관리 한다.

또한 경산시는 생명사랑 실천가게, 숙박업소, 병원과 약국 지정 운영으로 자살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자살 예방 교육 및 게이트키퍼 양

구미시, 기업 현장 발품 행정... 애로사항 해결 '적극'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 시스템 구축 기업 활동에 극적인 수출 증진 기여

구미시가 기업·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민선 8기 시작과 동시에 '현장과 기업에 답이 있다'라는 기치 아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발로 뛰는 행정을 바탕으로 기업 52개사를 릴레이 방문하며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지난해 구미 대표 기업인 ㈜농심 구미공장 방문을 통해 컵라면 증산을 위한 200억 원 투자 계획을 청취하고, 생산라인 추가 증설에 따른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원스톱 서비스 확충 등 기업 애로사항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구미산단 수출증진에 기여했다.

최근에는 ㈜서일, ㈜대진기계를 방문해 구미국가산업5단지 내 임시 개통 도로구간의 방호벽으로 인한 대형 차량 통행 불편 사항을 한국수자원

공사와 협조를 통해 하반기 중 도로 정식 개통, 준공과 함께 방호벽을 제거함으로써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창호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후 현재까지 총 197건의 기업애로 사항을 접수해 175건(90%)을 처리하면서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구미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기업 인프라 분야의 교통, 도로, 상수도, 주변 환경 등 애로사항을 대부분 해결하고 있으며, 중앙선 철선, 차선 확장 등 주변 여건상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업체와 충분히 교류하는 등 협조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기업 상담 분야에서는 법률·특허, 세무·회계, 노동, 관세·무역, 공장설립 상담 등을 통해 기업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애로 상담관제를 적극 활용해 기업애로 해소에 나선다. 현재 기업애로와 관련해 진행 및 검토 중인 사업으로는 동락공원 입구 앞 교통 단속카메라 설치,

15,000m³/일, 매호취수량 확장 21,000m³/일, 송배수관로 설치 11km를 완료했다.

이날 준공식 행사는 상주시소년소녀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시작해 사업 경과보고, 유공자 공로패 전달, 통수식, 준공식 제막식,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으며, 우리 삶 속 물의 소중함과 정수장 등 상수도 시설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오랜 시간 기다려 온 도남정수장 확장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도남정수장 확장을 통해 상수도 보급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문경 고령층 취약계층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문경시는 정부의 탄소중립 및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따라 관내 미세먼지, 병해충 발생 저감 및 산불방지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산림인접지, 영농부산물 파쇄가 필요한 65세 이상 고령층 및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3인 1조)이 농장에 직접 방문해 사고, 오미자 등 과수 전정가지 및 영농부산물 잔량을 수거·파쇄 대행해주는 사업이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시 일일미당, 각 읍면동 이장회의 및 상담소장을 통해 사업을 홍보했다.

지난 6일 문경을 황경연 사과농가의 잔가지 파쇄작업을 시작으로 3월~4월, 10월~12월에 단력적 기간 운영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 추진한다.

특히 산불발생이 많은 3~4월에 집중추진해 산불 예방, 미세먼지 저감 및 영농부산물 파쇄 후 바로 농작지와 과원에 살포 퇴비화를 통한 유기물 공급 효과 및 토양비옥도 제고 등 자원순환 실천을 기대할 수 있다.

김동수 기자

예천군 공군제16전투비행단과 자매결연

예천군 유천면과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은 11일 오전 유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예천군수와 공군 제16전투비행단장, 그리고 유천면 관내 24개리 이장, 공군부대 4개전대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제1권역 화지1·2, 매산1·2, 가1·2→항공기정비전대 △제2권역 고림, 송지, 율현, 연천1, 용암, 초적→기지방호전대 △제3권역 고산, 성평, 광전, 손기, 수심→작전지원대 △제4권역 송전, 중평, 죽안, 마천, 화전, 사곡→항공작전전대 등 총 4개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어 더욱 촘촘하고 내실 있는 자매결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매결연 협약에 함께한 김학동 예천군수는 "오늘 협약을 계기로 상호신뢰하고 협력하여 민과 군 상생발전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은 그동안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수해 능가 일손 돕기, 이·미용 봉사활동, 명절맞이 이웃돕기, 사랑의 김장 나누기 참여, 플로깅 활동 등 꾸준한 봉사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군 이미지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안병욱 기자

성 교육으로 지역사회 내 생명지킴이를 확대 양성한다.

자살 시도자 및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와 치료비 지원을 하는 등 경산시 내 생명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한편 자살 예방 상담번호가 2024년 1월부터 '109'로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

109는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주고 '명의 생명도, 자살 없이(Zero), 구하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혹은 경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화(☎816-7190) 및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신경운 기자

낙동강변로 교차로 개선 사업, 구미국가산업1단지 복개주차장 조성 사업, 코로롱 협업 단지 침수 예방 사업 등이 있으며, 시는 기업의 편의를 증진하고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새롭게 구성된 기업애로 대책 TF팀은 단일 부서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구미국가산업1단지 내 주차 관련 문제 등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계자들이 참석한 수시 회의를 열어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구미국가산업5단지 하이테크밸리 생활용수 공급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구미시의회와 공동 대응을 통한 부서 간 협업으로 신속하게 해결했다.

시는 상반기 중 직원과 기업체 실무조사 결과를 반영한 기업사랑 도우미 운영을 개편하고, 지역기업을 수시로 방문하는 등 타 도시와 차별화된 기업애로 해결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은진 기자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2025

A P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에서

과거의 역사를
아우르고



현재의
경험을 나누고

미래의 꿈을
실현합니다

